



# 1/4分期 石油需給 動向과 展望

国内油類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景氣 침체로 인한 수요감퇴를 반영, 금년 들어서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오던 石油類 소비는 지난 1/4分期中 4천 3백70만6천배럴로 前年同期對比 14.3%의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油種別 需給動向을 보면, 택시燃料의 LPG 轉換, 發電用 油類 수요의 감소, 石油化学工業의 가동을 저하등으로 특히 揮發油, 벵커-C油, 나프타 등의 격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나프타는 前年同期對比 21.0% 감소했으며, 휘발유와 벵커-C油는 각각 前年同期對比 10.7%, 17.9%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油類 소비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LPG는 前年同期對比 1.6% 증가했으며, 특히 프로판가스는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와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13.7%의 伸張勢를 나타냈다.

国内油類 수요감퇴로 原油 도입량도 1/4分期中에 4천41만6천배럴로 前年同期比 24.1%나 감소되었으며, 精油社들의 가동율은 58.4%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油類 수요의 격감은 景氣 침체에 따른 산업생산 활동의 부진이 그 主因을 이루고 있다. 1/4分期中 경제동향을 보면, 산업생산활동은 지난해 10월 이후의 감소추세가 지난 2월부터 增加勢로 反轉했으나 輸出은 지난해 11월 이후의 伸張勢 둔화 추세가 지속되어 지난 1/4分期中의 수출신장율은 前年同期對比 5.7%에 그치고 있다.

◇ 1/4分期 石油類需給動向

(單位:千배럴)

區 分	'81		'82		增減(%)		
	生産	消費	生産	消費	生産	消費	
揮發油	376	294	160	229	△57.4	△22.1	
普通油	1,206	1,138	970	1,050	△19.6	△7.7	
油計	1,582	1,432	1,130	1,279	△28.6	△10.7	
燈油	2,494	2,257	2,124	1,996	△14.8	△11.6	
輕油	0.4%	—	1,589	1,373	—	—	
1.0%	11,795	10,302	7,909	8,222	△32.9	△20.2	
油計	11,795	10,302	9,498	9,595	△19.5	△6.9	
輕質重油	581	572	538	559	△7.4	△2.3	
重油	474	369	245	218	△48.3	△40.9	
B	1.6%	—	2,491	3,353	—	—	
1	2.5%	—	1,507	1,332	—	—	
C	4.0%	24,891	27,066	14,762	17,533	△40.7	△35.2
油計	24,891	27,066	18,760	17,533	△24.6	△17.9	
계트油	1,217	1,172	1,403	1,310	15.3	11.8	
航空油	—	0,101	—	0,302	—	199.0	
나프타	6,725	6,255	5,312	4,939	△21.0	△21.0	
溶劑	72	51	156	120	116.7	135.3	
L	프로판	444	585	366	665	△17.6	13.7
P	부탄	742	667	573	607	△22.8	△9.0
G	計	1,186	1,252	939	1,272	△20.8	1.6
아스팔트	295	283	188	200	△36.3	△29.3	
합計	51,312	51,011	40,293	43,706	△21.5	△14.3	

또 發電量도 1/4分期中 前年同期對比 4.5%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産業用 전력은 2.6% 증가에

머물고 있어 發電用 油類수요의 감퇴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油類수요는 예상외의 景氣회복의 지연으로 당분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景氣의 불투명으로 최근 정부는 올해 석유수급계획을 축소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總에너지 需要를 당초 前年對比 6.0%가 증가한 석유환산 48,630 천톤에서 同 1.3%가 증가한 46,481 천톤으로 축소조정했으며, 石油수요도 당초 전년대비 4.5% 증가한 1억9천만배럴에서 1.2% 증가한 1억8천5백만 배럴로 축소조정했다.

국내 油類需要감퇴로 ¼分期 原油導入量은 前年同期對比 24%나 減少되었으며, 精油社들의 稼働率도 58.4%에 머물고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油類需要가 減退될 것으로 보여, 政府는 올해 石油需給계획을 축소 조정했다.

◇ 82年度 石油需給計劃調整

(單位：100万배럴)

區 分		'81	'82		增減(%)	
			當 初	調 整	當 初	調 整
原 油	需 要	178	189	178	6	0
	供 給	183	198	187	8	2.2
	在 庫	12	21	21	75	75
製 品	需 要	182	190	185	4.5	1.2
	供 給	184	190	184	3	0
	在 庫	12	12	11	0	△8.3

註：政府備蓄分 約 900万B 包含(原油)

정부가 올해 石油需給계획을 축소조정한 것은 ① 發電用 연료유가 당초계획(前年對比 9.8% 증가)보다 5.6% 감소가 전망되며, ② 洋灰業界의 混燒率이 당초계획 68%보다 7% 늘어난 75% 수준에 이를 전망이고, ③ 石油化學 및 비료業界의 稼働率이 당초계획보다 4.3% 감소가 예상되며, ④ 揮發油 차량에서 LPG 차량으로의 전환이 당초계획(1만5천대)보다 1만7천대가 더 늘어난 3만2천대로 증가됨에 따라 휘발유 수요가 당초계획 보다 6.8%가 감소되고, ⑤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인한 전반적 수요감소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당초 올해 石油수요를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던 근거는 ① 우리나라 全石油類의 27%를 차지하는 發電用 연료유가 전년 대비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② 洋灰業界의

混燒率이 전년(54.4%)보다 13.6% 증가된 6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았으며, ③ 지난 해 11월 29일 油價조정시 나프타價格 3.1% 인하로 石油化學 및 비료 業界의 나프타수요가 5.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④ 大成에너지의 LPG輸入으로 LPG수요가 전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⑤ 통금해제와 注油所 및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해제에 따라 유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이러한 예측이 모두 어긋나고 만 셈이다.

国内石油産業은 최근 2년간 계속되는 需要감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의 展望도 景氣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油類수요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石油産業의 病狀회복은 아직도 먼 것 같다.\*